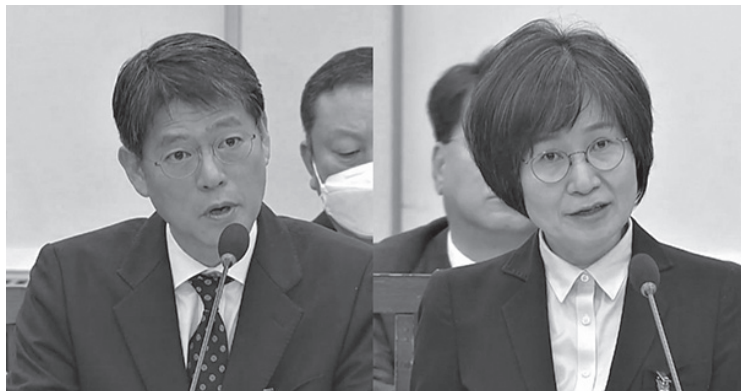


## 법무매거진

### 이승택·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‘적격’... 국회, 청문경과보고서 채택



법조인 동정



국회 행정안전위원회(위원장 전해숙)가 17일 대통령 지명 뒀인 이승택(56·사법연수원 22기·사진 왼쪽)·정은숙(56·31기·오른쪽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‘적격’ 의견으로 채택했다.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·답변 등 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도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단 두 시간만에 줄속으로 끝나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.

행안위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.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. 대통령 지명 뒀의 중앙선관

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.

행안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“지난 21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·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.”고 밝혔다. 이어 “제천시 및 진주시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18·20대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”고 설명했다.

(출처/법률신문)